

사순 제 2 주일

기도서 253번 (B)에  
제1독서: 창 세 22, 1-2.  
9a, 10-13. 15-18  
제2독서: 로 마 8, 31b-34  
복 음: 마 르 9, 1-9

#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마르 9, 7)

강 련



## 사랑의 희생

김 봉 희 신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마르 9, 7).

휘황찬란한 광휘 속에 빛나던 영광의 그 얼굴, 신비스런 신(神)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지금 대속(代贖)의 길,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예고하며 어둠이 깔린 세상을 향해 묵묵히 하산하고 있다. “저런 분이 십자가를 지시다니... 왜, 어째서?”(금일 복음).

제자들은 아직도 비몽중에 중얼거린다.

그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했다. 평소 「사랑은 주는 것이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기헌신(獻身)」이란 말을 곧잘 하긴 했지만 막상 십자가와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한참 후, 그것도 저희 스승이 죽어 산 「빠스카」의 신비를 일깨워준 연후에야 눈이 뜨여 그 크신 은총을 깨닫고 비로소 그만 이리 소리치기 시작했다.

“외아들을 바치라”며 매정히도 성조(聖祖)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시던(제1독서) 그 하느님이, 정작 당신은 하잘것 없는 이 인생들을 위해 고귀한 친아들을 실제 제물로 붙여 죽게까지 하신 그 놀람도록 숭고한 인간애(人間愛) 앞에 망연자실했던 것이다(제2독서). 사랑은 결코 말이 아닌 자기희생, 가장 아끼고 소중해 하는 것마저도 신뜻 내어줄 줄 아는 그런 희생(犧牲)임을 새삼 깨달았다고나 할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의 의미를 각별히 새기는 사순절.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신자라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게 없다. 스승 예수처럼 어둠과 험난한 세상 한 복판을 향해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를 질머지려 희생과 봉사의 길로 내려가야 할 뿐이다. 불안과 공포와 때론 죽음까지 엄습하는 고통을 예견하면서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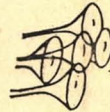
가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빛을」 비추자던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중거」하는 삶을 다지자고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금년엔 희생이던 사랑을 증거토록 분발하는 한 해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곳 저곳에 우리의 무관심으로 소외된 가난하고 버림받은 형제들, 고통받는 그들의 아픔과 설움을 대신 짊어지며 희생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에 우리 새로 다짐해 보자.

누리에 평화, 이웃에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덕진 주임신부)

소 리



## 관심 이야기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갖기를 좋아한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다. 관심은 곧 사랑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에게서 ‘남의 쟁상(祭床)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는 시비조의 나쁜 관심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어려운 이웃의 처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기와 대등한 처지에 있거나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이웃의 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며 호들갑을 떨기까지 한다. 그러다보면 없는 일까지 지어내기 마련이고, 또 조그마한 일들을 크게 확대하기도 한다. 이야말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문제중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임 민정당 대표위원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신기자들까지 참석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했다. 한 의신기자는 “88년도 대통령 후보자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노대표는 “그런 오해는 없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본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제 5 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나온 이야기, 그 전월지를 알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의신기자가 물었다. 그는 어떤 의미의 관심을 보인 것인가? 본국 기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가, 아니면 감히 묻지를 못했는가, 아니면 기선을 빼앗겼는가? 국내사정을 의신이 보도하던 70년대가 생각나나 펜시리 마음이 산란해진다.

마음을 두는 관심, 참으로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이 사순절에 무엇이 관심을 갖고 지낼 것인가! 우리에게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많다. 어려운 이웃, 어지러운 이 사회, 모자라기만한 나, 그 어느 하나를 배놓을 수 있던 말인가!

## 숲 정 이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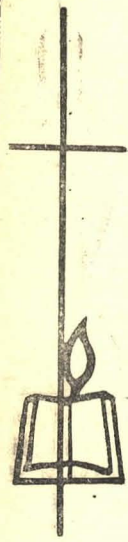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성서 교실 ①

###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마르코 1:15(마태 4:17)



마르코는 예수님의 전도(傳道) 개시(開始)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선교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가왔다」는 말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왔다」는 뜻이다.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문밖에도 와 있으므로 지금 당장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말이다.

마태오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마태오 3:2)고 말하고 있다. 같은 말이지만 양자(兩者)의 경우,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의 말은 「죄의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요한의 말은 「죄 사람의 준비」인 것이다.

또 요한의 「하늘나라」는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요한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요한의 천국은 「심판」인 것에 반하여 예수님의 그것은 「복음」인 것이다. 예수님이 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이며, 「하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거기에 들어가라」 이것이 복음이었던 것이다.

“하느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요한 3:17-18).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고 예수님은 말한 것이다. 이것은 「의(義)의 심판」이 아니고 「기쁨의 복음」인 것이다.

예수님의 「내림」에 의해서 천국은 이미 왔다. 그러나 완전한 하느님의 임재, 실현은 마지막 날에 가서 있게 될 것이다. 현실의 천국체험이 없다면, 후일의 천국체험이 있을까?

###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그리스도의 변모는 복음서 속에서 그분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에, 즉 제자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신 사명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계시하시는 순간에 일어났다. 오늘 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수난과 죽음을 전제하는 부활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에서 목격한 하느님의 현시를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하느님께서 구름과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현존을 현시하실 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입회 아래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에 의하여 변모하여 나타나신다. 이 빛나는 변모의 영광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켰고, 이 두려움은 하느님 면전에서 느끼는 종교적 경외이다. 그러나 이 영광은 또한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내성(內省)을 불러 일으킨다. 베드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분의 영광을 목격하고 기쁨을 나타낸다. 예언자들이 메시아 시대에 대하여 예언한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도 당신 백성과 함께 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광이 최후의 날의 영광은 아니다. 다만 옛날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옷과 얼굴을 비추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영광은 구름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선포하는 것과 같이,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

다. 동시에 이 목소리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나눈 대화의 내용, 즉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하는 “탈출”과 “영광”에 들어 가는데 필요한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시를 확인해 준다.

왜냐하면 이 하느님의 목소리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변모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시어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존엄성을 충만히 나타내 주실 영광, 즉 파스카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전표가 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십자가의 신비에 참여하게 될 때 힘을 얻을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변모로써 미리 나타내신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은, 현세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모되고, 마침내 종말에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그들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행위는, 변모가 제자들의 신앙을 견고케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 학 생 사(서점·문구)

- \* 학용품 · 사무용품 · 복사
  - \* 초·중·고 참고서 · 문제집 · 각종 서적
- 신학기용품 도매 교우분들 우대  
 군산시 명산동 사거리 전북은행 앞  
 ☎ ② 7993 · ② 0233  
 주. 조. 길. 남(도미니교)

교형자매상담환영, 아퓨터서비스

### K 국제보청기

전주점 : 전주시 경원동 3가 39-6 (대학병원입구바다다방앞)  
 ☎ 2-9894

광주점 : 광주시 동구 서석1동 52-13(전남공고앞 오거리)  
 ☎ 27-9940, 9970

主 正 프란치스코 정 세레나



나눔의 뜰

□ 거룩한 사순절에...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는 요즘, 각 본당에서는 다채로운 사순절 전례를 마련하고 기도 와 특별강론을 겸한 모임들이 한창이다.

3지구(군산지역)에서는 사순절 특별 강연회를 마련하고 지구내 각 본당 신부님들이 서로 교대로 이웃 본당에 가서 미사와 더불어 사순 특별강론을 하게 되는데 신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주 덕진 본당에서는 사순시기 동안에 <사순 봉제 숲정이 미사> 모임이 매일 실시되고 있는데... 새벽 6시에 성지 숲정이에 모여 미사를 겸한 특별기도가 마련되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새벽의 맑은 공기와 성지라는 특별한 장소의 조용한 기도 분위기 속에서 사순절을 더욱 보람있고 뜻깊게 보내려는 신자들의 열기가 대단하다고...

거룩한 이 시기에 모든 본당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기도한다.

□ 상관본당 『우정의 날』

신앙 안에서의 형제적 우정을 더하고 그 마스한 우정의 표현을 이웃에게 나누는 모임이다. 상관 본당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우정의 날>로 정하고 특별한 지향으로 미사와 더불어 가난한 이웃을 위한 자선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큰 뜻을 가지고 시작되는 이 모임이 더욱 좋은 보람과 기쁨의 모임이 되기를 기원한다.

□ 풍악을 울려라

장계본당 넓은 앞마당에서 때아닌(?) 풍악이 울리고 있다. 징 치고 팽과리 치고 장고와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닥아오는 농사철을 더욱 재촉하는 듯...

본당 농민회 주관으로 농악교육이 한창이다. 신자는 물론 비신자가 참석해서 27일부터 일주일간 농악의 이론과 실습이 계속된다. 자꾸만 잃어져가는 민속의 풍물을 되찾고 급년에도 풍요로운 결실을 다짐하는 이 모임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관심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더욱 결속되고 활성화되는 장계 본당 농민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 숲정이 명상

「숲정이 명상」을 마련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이것은, 먼 옛날 희랍의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는 우리도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겪게 되고 세상 일에 실패를 하는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가끔은 자신에 대한 자기 확인이 필요하다.

자기 확인- 자기 삶의 좌표를 확인하는 일.

많은 사람이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도 비싸졌다고 생각한다. 높은 사람과 만나면서 자신도 높아졌다고 믿는다. 돈 벌었다고, 권력 얻었다고,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고 믿는다. 자신의 모습을 돈이라는 거울에, 명예나 권력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서 그런 자기라고 확인하고 규정한다.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라는 거울앞에 서서 자기의 확인이 필요하다.

내 이제껏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졌는가. 자기의 빚어진 모습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가끔 자기를 확인하라.

여기, 신앙 안에서의 자기확인 고귀한 시간을 마련한다.

<숲정이 명상>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확인하는 난이 되길 바란다.

요십이 (604) 김병오

몇년전에는 매스콤에서 "김대중이" "김대중이" 라고 했는데...



얼마전에는 "김대중씨" 라고 하더니



지금은 "김대중선생" 이라고 하니...



얼마후에는 "각하" 라고 보도할지도 모르지...?



나들이 미용실

\*신부화장 \*드레스대어  
\*사모관대 대어  
\*부케 알선 \*사진촬영  
이리경찰서앞(하야건물)  
☎ 2-7901  
김 숙 자(실비아)

천주교 서적 판매합니다  
(성바오로출판사, 가톨릭출판사, 분도출판사)

군산 양우당서점

초·중·고 참고서, 신간서적, 기술서적, 피아노교본  
주 박영근(가브리엘)  
☎ 62-9984  
군산, 군산 고등학교 옆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트라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서울주단

☎ 03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마기환 안과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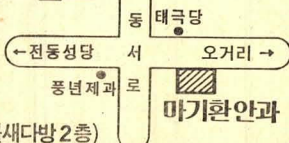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의 마기환

한 남 회(비리시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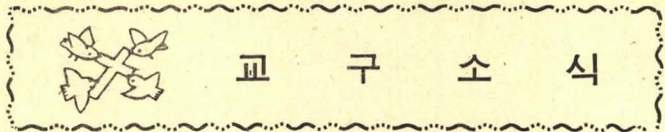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 2층)





(4) 숲 정 이



1. 성서 40주간(목요성서) : 밤반, 개강-3월 7일, 회비-2천원, 「낮반도 있음」
  2. 교사학교 학생모집 : ①교과목-성서·신학·철학·종교학·심리학·교육학·윤리학 등  
 ②과정-1년(1학기:3~5월, 2학기:9~11월)  
 ③수업시간-매주 화·수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④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월 11일~3월 11일, 장소:교구청 교육국(☎ ⑤0041~3)  
 ⑥등록금-학기당 4만5천원(교재비·특강비 포함), 개강:3월 18일 오후 7시 30분
  3. 제4기 혼인강좌:3월 4일~8일(오후 7시), 장소-가톨릭 센터
  4. 군중후원회 월례미사:3월 4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5. 제22차 어린양들의 모후 소년꾸리아:일시-3월 3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사제관 2층
  6. 제7차 성실하신 동정녀 소년꾸리아:일시-3월 3일 오후 2시, 장소-창인동성당 L·M 회의실
  7. 푸른군대 특별피정:일시-3월 7일 10시~오후 5시, 장소-노송동성당,  
 강사-김진소 신부님·최필립보 회장, 준비-회비(1천원)·도시락·피정준비 및 미사도구
  8. 전국 토사리오 창립총회:3월 9일~10일, 장소-가톨릭 센터
  9. M·E 전주교구 8차를 위한 “다리과점” 2번째 모임:3월 5일 오후 7시30분, 장소-금암성당
  10. M·E 전주교구 사도직 참부모 참부부가 되는 길:3월 9일 오후 4시~10일 오후 4시까지
  11. 사제 평의회:3월 5일 오전 10시30분
  12. 사무장님:3월 10일 공지사항에 각 본당 미사시간과 교리시간을 알려 주십시오
  13. 1지구 중·고등학생회 정기총회:3월 10일 오후 2시, 중앙성당
- ☆ 고침:2월 17일자 주보 2면 단식제 만21세부터 만59세를 60세로 고칩니다  
 □ 축! 영명:성 가시미르(3월 4일) 오 험택 신부님 축하합니다

전주시 진북2동 1144-1	<b>숲 정 이</b>	사 제 관 ③ 7 3 6 6
주임신부 김 종 길	<b>천 주 교 회</b>	수 너 원 ③ 9 5 6 7
사도회장 김 수 결		사 무 실 ③ 7 3 6 6

1. 미사시간 변경:3월 5일부터  
 저녁미사-7시, 토요일-오후 6시30분
  2. 십자가의 길: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3. 사도회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4. 꾸리아 월례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5. 84년 10월 영세자 모임:3월 5일 저녁미사 후
  6. 애령회 부회장 사임:이근창 형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7. 금주전례:해설-강원모,  
 독서·기도-정주복·홍성조  
 차주전례:해설-강원모,  
 독서·기도-이귀례·송숙자
- 지난주 봉헌금:346,260원 교무금:494,010원